

2022년 제5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핑

UNESCO ISSUE – – BRIEF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유산 해석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논의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하며,
집필자의 의견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고 중간 발표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필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중간 발표회 2022년 8월 18일

발표 | 최재헌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교수)

토론 | 이수정 (세계유산해석센터 연구개발실 실장)

토론 |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022년 제5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UNESCO ISSUE BRIEF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유산 해석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유산 해석

최재현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각국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적대감에 사로잡혀 국가 간의 평화와 공존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런 국제적인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5년 11월 16일,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에서 상호소통과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1953년 7월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치령을 공포하고,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했다. 1963년 4월 27일에는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67년에는 유네스코 회관을 준공하기에 이른다.

유네스코 문화활동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이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1972년에 제정한 세계유산협약에 근거를 두고, 인류가 공동으로 공유하며 보존해야 할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inscription)함으로써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후속세대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세계유산의 등재 대상은 기념물(monuments), 유적지(sites), 건물(군) (buildings)으로 제한되며, 핵심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자문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은 신청 당사국이 등재신청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자문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를 거쳐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도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주체인 당사국의 의지에 따라 유산이 지니는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적 가치(local value)^[1]와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무시하거나, ‘포장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만을 세계인에게 알려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일본의 메이지 산업 유산의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은 등재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한국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강제노동의 역사를 유산 해석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유산의

[1] 로컬 가치 (Loc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제외한 모든 가치를 망라하는 개념.

온전한 역사를 반영한 해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출된 이해당사자의 집단적 기억과 유산 해석의 불일치를 둘러싼 갈등 유산 해석의 문제는 한일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인 쟁점임이 분명하다. 유산 해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계기로 갈등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대응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의 유산 해설방식을 고수하는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에 따른 다양한 해석 방식을 인정하고 도입할 필요성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유산의 해석을 둘러싼 질문으로 세계유산 해석과 유산 해석은 어떻게 다르며, 세계유산 해석에서 국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유산 해석을 통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평화로운 공존과 2012년부터 세계유산협약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제도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세계유산 해석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했다. 첫째, 제도적 관점은 세계유산이 유네스코가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화유산의 개념 변화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적 가치를 세계유산에 반영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둘째, 윤리적 관점은 지속가능성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유산 해석의 당위성과 함께 지역정체성과 체험의 중요성을 논의해보고자 했다. 셋째, 실천적 관점에서는 유산 해석과 세계유산 해석의 차별성을 고려하고, 유산 해석의 담론 변화를 고려하여 다면적인 해석이 가능한지를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해석의 방향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II. 제도적 관점에서 본 세계유산 가치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local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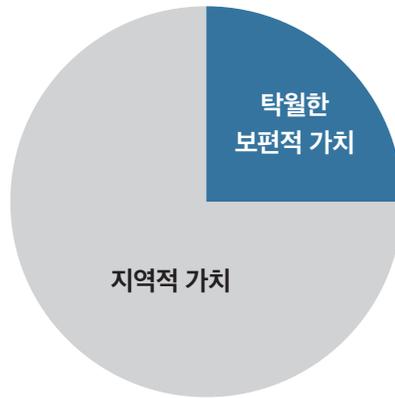
세계유산 제도의 근간이 되는 OUV 중심 담론은 베니스헌장(1964)과 진정성을 위한 나라문서(1994)를 근거로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도출은 보존의 대상이 되는 유산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속성(attribute)을 분석하여 문화적 중요성(cultural significance)을 밝히고, 등재기준에 부합하도록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비교연구를 통해 하나밖에 없다는 희소성이 아니라 한 문화권 안에서 보편적 가치의 탁월성을 밝히는 방법을 택한다. 예를 들어 남한산성은 외침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방어 시설이라는 보편성을 지니면서도 조선왕조가 전란을 위해 자연지세를 활용하여 만든 대피성이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05년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운영지침에 포함하여 그 이전에 등재한 유산까지 소급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등재기준,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를 통해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담론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유산이 자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수단과 브랜드로 인식되면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정치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의 주체인 당사국의 의지에 따라 등재를 위해서라면 유산의 일부 역사만을 반영하거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유산의 문화적 중요성과 관련한 가치 중에서도 등재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외의 유산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적 가치는 무시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세계유산 제도는 세계유산협약이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되었으므로, 이해당사자에 따른 유산 해석의 갈등이나 원주민 등의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등재 과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197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운영지침을 운영해 오면서, 매년 필요에 따라 세계유산위원국의 동의를 얻어 운영지침을 개정해왔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도 2005년부터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자문기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세계유산 등재 과정

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등재 신청 건수를 매년 35건으로 제한하고, 2023년부터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도입해 2027년까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2028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예비평가 신청서와 등재 신청서 작성 시 그 내용과 분량도 제한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록 평가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진정성 서술을 위한 8가지 속성 중 '정신과 감정' 항목에서 원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지닌 무형의 가치와 기억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예비평가 신청서에 들어 있는 기타 항에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원만한 조정절차를 반드시 서술하도록 했다. 이는 잠정목록 등재 이후에 이해 당사국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본 심사 절차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절차를 그나마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산가치 = 탁월한 보편적 가치 + 지역적 가치



세계유산협약 출범 50주년을 앞두고 나타난 이런 변화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주장한 세계유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OUV 담론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지역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작은 결실로 볼 수 있다. 지역적 가치는 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치 중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진술문이 포함하지 않는 가치를 모두 망라하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그림 1). 따라서, 지역적 가치에는 세계유산과 관련한 무형 유산적 측면과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감정과 정신, 집단의 기억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세계유산의 OUV 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정보기술, 관광, 다양성과 성평등, 인권, 재난과 팬데믹, 새로운 유산접근법,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유산 장소와 기억, 갈등, 세계유산목록의 제한, 시민사회 참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https://www.ourworldheritage.org>). 특히,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리 및 보존체계에 장소에 대한 기억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무형의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반영하는 포용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 문화유산 개념의 확대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세계유산에 대한 제도적 정의와는 별개로 문화유산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세계유산의 가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함께 지역적 가치를 종합한 것이며, 각 지역의 고유한 지역성을 반영한 세계유산은 지역과 장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삶의 방식 속에서 유형·무형의 전통을 결합하여 그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관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비달리즘(Vidalism)의 전통에 따르면 문화는 삶의 방식(*genre de vie*)이며,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양식으로 해석된다. 문화는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집단의 수준에서 보면 문화는 사회가 공유한 의미의 집합으로서 가치와 상징체계를 통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이며, 개인의 수준에서는 개인의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능력, 습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한편, 유산(heritage)은 과거로부터 내려와서 미래로 전승되는 것으로서, 지난 과거와 남은 것, 상속, 보존의 다층위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내려왔으나 현재의 가치를 반영하여 미래 세대에게 상속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유네스코에서 다루는 문화유산의 개념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유형의 기념물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대됐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 협약과 이코모스(ICOMOS) 탄생의 근거인 베니스헌장(1964)에서는 건축환경을 문화유산의 핵심으로 보고 기념물(monuments), 유적지(sites), 건물군(group of buildings)만을 세계유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그 범위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으로 확대했고, 2011년에는 유형과 무형유산, 자연과 문화유산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현경 등, 2019).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크게 유형유산, 무형유산, 문화유산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문화경관까지 포함한다. 유형유산에는 고고학 유적지 등의 고고학 유산, 건조물 유산, 동산 유산, 수종 유산 등이 포함되고, 무형유산에는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예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공예 기술, 문화공간 등이 포함된다. 문화유산으로서의 자연에는 불교 순례지인 카일라스산(Mount Kailas)과 같은 성소(sacred places), 사회적 장소, 문화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명승지(beautiful places) 등이 포함된다. 문화경관은 19세기 지리학에서 발전시킨 경관의 개념을 적용하여 취락 패턴, 장기적으로 이용된 경관, 문화 가치와 규범 및 태도 등이 반영된 토지이용 등을 다루며, 경관 규모에서 인간과 장소 사이의 연결 과정과 역사를 중시한다. 세계유산 운영지침 47항에서는 경관을 자연과 인간이 결합된 작품(combined works of nature and man)으로 정의했다. 즉, 문화경관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결합, 과거와 현재의 결합, 장소와 가치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의 문화재청도 2022년부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유산기본법’과 국가유산의 하위분류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으로 법체제를 정비하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예정이다(문화재청 홈페이지, 2022). 이와 함께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장한 포괄적 보호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의 문화유산 분류는 국제적인 유산 분류체계와 상호 호환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논의의 결과는 운영지침 77번 항목의 등재기준 (vi)번으로 귀결된다. 등재기준 (vi)번은 직접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고와 신념,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예술적 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등재기준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979년에는 등재기준 (vi)번만을 적용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되었다. 당시 동일한 본질을 갖는 다른 유산의 등재는 불허한다는 전제하에 등재가 이루어졌지만, 이 전제는 1996년 히로시마 원폭 돔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희망에 대한 상징으로서 등재기준 (vi)번만을 적용하여 등재함으로써 깨지게 되었다. 등재 결정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은 전쟁 유적은 인류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지 못할뿐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이 가해국이 아닌 피해국의 흉내를 내는 빌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등재기준 (vi)은 세계사적인 사건과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기 때문에 개별 유산의 무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편, 2003년 인류무형유산협약(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문화유산에

무형적 가치와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의 버라헌장(Burra Charter, 2013년 개정)은 유산이 소재한 장소(place)의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했고, 나라문서(Nara Document +20)는 진정성과 관련하여 과거 가치가 아닌 현대의 가치를 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코모스 해석분과(ICIP, 2008)는 유산 해석을 위한 포용적 참여 과정(inclusive participatory process)을 중시했으며, 이에 따라 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등이 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의 주요 요소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류 무형유산협약은 문화공간을 등재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세계유산제도와 결합해 인류 무형유산제도를 활용한다면 유산이 지니는 유·무형의 가치와 그 속성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갈등 유산, 기억 사이트, 양심 사이트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전쟁 유산이나 갈등 유산이 세계유산협약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 전쟁 유산과 갈등 유산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성격을 가진다. 갈등 유산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이 이해당사자에 따라 달라서 유산의 온전한 역사와 속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식민지 유산에서 식민 지배국의 건물과 건축술 등만을 반영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은 원주민의 기억 등 어두운 속성을 무시한다면 이는 갈등 유산이다. 전쟁 유산은 전쟁터나 전쟁기념물, 전쟁유적지 등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이트나 기념물, 건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얼빈의 731부대 건물이나, 벨기에의 솜강 전쟁터 등은 전쟁과 직접 관련된 유산이다. 우리나라의 부산 피난 수도는 한국전쟁 중에 임시로 운영했던 국가의 주요 수도기능을 담당했던 시설물로, 전쟁이 직접 발발한 전쟁 유산이라기보다는 도시 유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결의안에 이르지 못했지만,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제출한 2021년 보고서는 전쟁 유산이 유네스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집단 사이에 유산의 가치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갈등 유산과 관련하여 유산 해석과 관리를 위해 이코모스에서는 프랑스의 Pierre Nora가 1997년 정의한 기억 사이트(Site of Memory)의 개념을 제시했다. Nora에 따르면 기억 사이트는 박물관, 교회, 사원, 궁궐, 묘지, 기념물 등과 같은 장소이며, 제례와 추모 등의 행위, 추모 기념물, 엠블럼, 상징물, 기본 서적, 지침서, 상속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에서도 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전적지와 전사자 묘지, 인종차별, 종교 차별, 노예, 학살, 인종청소, 대량 학살, 식민 탄압, 강제 노동, 독재 탄압 등 인권 탄압이 일어난 장소, 팔미라나 바미안 같은 훼손이 일어난 장소 등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기억 사이트이다. 만약 기억 사이트에서 어떤 장소의 역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가 모든 수준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느낄 만큼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윤리적 근거를 갖추고 해석 과정에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ICIS, 2018).

1990년대부터는 기억 사이트와 양심 사이트로 그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양심 사이트(Site of Conscience)는 유산 장소에 대한 여러 기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해당사자의 본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를 만든 곳을 의미한다. 양심 사이트는 인권 옹호와 유산 보전의 교차점에서 유적지의 역사를 해석하고, 억압된 사회적 쟁점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적지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이 공공 참여 기회와 긍정적인 행위로 이어져 인권에 대한 보편적 문화와 정의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로 정의된다. 즉, 양심 사이트는 살아있는 기억을 다루며, 그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고 방문객들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도록 격려하는 장소인 셈이다(ICIS, 2018). 따라서 갈등 유산이나 전쟁 유산과 관련해 유산 해석에 충돌이 벌어질 경우 양심 사이트로 적절한 갈등 해소 장치를 마련한 곳만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산화 과정과 장소 정체성

오늘날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그 선택적인 가치를 전승하는 유산화 과정(heritagefication) 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uggles and Silverman, 2009).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래유산 제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의 미래유산을 추천하고 이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산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유산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과 장소의 정체성이 유산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유산은 장소와 불가분을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장소와 지역의 정체성(place identity)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장소를 문화적 중요성(cultural significance)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다룬 것은 호주 이코모스가 제정·공포한 버라헌장(Burra Charter)이다. 버라헌장은 장소성(sense of place)을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유산의 정체성과 진정성의 요소로 중요하게 다룬다. 호주 원주민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 정체성은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런 집합적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적이며 변화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genius loci)을 구성하는 것은 공간 환경, 내용물, 정신

과 감정이며, 장소 정체성은 다양한 공간 규모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유산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장소를 형성하는 통합적인 구성요소이며, 유형의 물질 형태뿐 아니라 무형의 비물질적인 현실, 관계, 연계성 등으로 표현된다. 문화유산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체(social construct)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거나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문화유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유산화(heritagefication)라고 정의하는 것이다(Wöhler, 2008, Sandholz, 2017). 세계유산에 글로벌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도 일종의 유산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산과 장소 이미지는 정체성 형성과 깊이 관련되어 장소마케팅을 통해 확대되는데,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지역공동체가 장소 유대감을 통해 형성한 지역적 가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묻히거나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세계유산의 상품 브랜드화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글로벌 담론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유산과 관련한 특정 속성과 특정 집단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원주민과 지역 가치를 무시하고 결국 지역 정체성 해체로 이어지는 유산 해석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유산 해석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장소와 관련한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이 이해당사자에 따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선택적인 유산화 과정을 통해 갈등 유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유산가치 해석을 옹호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에 따른 장소 정체성의 서로 다른 형성과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포용적인 접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윤리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유산 해석

1. 지속가능발전과 유산 해석

세계유산에 지속가능발전을 공식적으로 결합한 것은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이 초석이 되어, 2012년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세계유산협약의 틀에 통합하는 정책 초안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2015년 11월에 세계유산협약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같은 해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원칙으로 인권(human rights), 평등(equality),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제시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담았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부르는 이 목표의 11번 항목에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표방하면서, 하위 항목인 11.4에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UNCSD 2012)"이라는 제하로 Rio+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문건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를 보면, 1) 포용적인 사회발전(인권, 원주민, 성평등); 2) 포용적인 경제발전; 3)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 4) 평화와 안정(peace and security)의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4가지 정책적 차원을 서로 아우르는 통합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다.

세계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을 보는 시각으로는 첫째, 유산보존을 개발의 반대로 이해하는 시각, 둘째, 유산보존을 지속가능성으로 보는 시각, 마지막으로 유산보존을 공동체 발전으로 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회로 세계유산을 삼기 위해서는 유산보존이 개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계유산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하며,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보존이 이루어지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유산은 문화적 지각과 사회 가치, 문화 행위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세계유산을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공동체, 정부, 경제와 관광 분야의 이해단체, 민간부문과 대학 등이 모두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산에서 지속가능성은 경제·환경·사회적인 특성만을 고려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문화유산 보존 행위(action), 역사적 장소(the territory), 문화적 생산(the people)과 함께, 지속가능한 유산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정체성(identity)이다. 정체성은 사람과 기억, 장소 간의 상호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얻어지는 비계량적인 성질이 있으며, 유산은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서,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문제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계유산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화적 지각, 사회적 가치, 문화 행위에서 기본적인 지역 정체성과 집단의 기억을 왜곡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역정체성은 같은 사회체계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공유 가치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산에 대한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요인은 기존의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등재신청서에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사회경제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의도를 갖는다면 이는 결국 지역정체성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세계유산 등재에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기술적 노력이 필요한만큼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민과 무관한 유산의 가치를 마치 어떤 선언처럼 앞에 내세우고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유산을 평화가 공존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만드는 핵심인 셈이며 유산의 올바른 해석과 정체성 유지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사회적인 복지나 사회문화적 지표 등을 등한시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해석, 정체성 기준, 개념 등을 마련하면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와 대중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대부분 경우에서 정부는 세계유산의 등재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기술적, 인적 자원적인 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시민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득하지만, 세계유산 등재가 지역정체성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핵심 내용이어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

으로 삼는 것이 관광과 비즈니스 부문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세계유산의 혜택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외부 투자자본과 대규모 상업시설의 유치가 세계유산 등재와 동반되어 일어나는 일이 흔하지만, 지역주민과는 단절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행위에 대한 가치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중의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 가족, 공동체 수준에서 유산에 대한 보존, 가치 부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차원적인 유산 이해를 통해 결국은 전체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국지적 수준에서 보면 인간의 필요와 지역 자원, 시민의식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계유산의 보존은 공동체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의 균형감을 찾는데 달려있으며, 현명하게 지역의 문화적·자연적 자원을 관광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품으로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유산은 역사적이고 유형적인 건축물과 같은 객체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살며 점유하고 있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잠재력, 기회, 장점, 문제, 위협, 장애 요소 등을 확인하고, 최고의 방법을 택하여 유산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에 노출되는 갈등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타협과 반대의견에 대한 존중,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갈등을 해소하면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서로 깨닫고, 새로운 해결책과 시각을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기관,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체로 대표되는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찾아 보존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바탕은 지역공동체가 자신의 가치와 사회적 행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혜택과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경시하거나 전통을 무시하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는 기억과 정체성 강화와 병행해야 한다. 유산에서 발견되는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기억은 창조적인 능력과 모든 영감의 근원이기도 하다.

2.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세계유산 해석

문화는 다양한 사람과 전통 문명 사이의 대화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다. 문화는 국가의 조화롭

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원이며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이끌 촉진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문화를 통해 인류는 다른 집단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식을 찾게 되므로 문화 중심의 평화로운 공존 방식을 인류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바탕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유네스코 헌장과 1972년 세계유산 협약, 2003년 무형유산 협약,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협약 등은 이런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된다.

2008년 이코모스 해석과 홍보 분과(ICIP)에서 제안하여 만든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이코모스 Ename Charter (2008)’는 유산 사이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각자의 문화에 대한 해석과 문화 간 상호소통(intercultural dialogue)이 중요하며, 지역정체성을 촉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사례로는 이탈리아에서 Fondazione 재단이 기획한 “Life Beyond Tourism Movement - Travel for Dialogue Movement”를 들 수 있다(www.lifebeyondtourism.org). 이 프로그램은 호텔의 빈방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세계유산 사이트에 머물게 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현지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교환하며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 하나의 좋은 사례는 “FLORENCE in the WORLD, the WORLD in FLORENCE”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사이트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 지식교환 등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처럼 한국도 한국이 유치한 ‘세계유산해석센터’의 사업프로그램으로서 ‘세계유산 체험센터’ (가칭, Awareness Center) 등을 만들어 세계유산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과 지식 수준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심을 배우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여행지를 방문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잠깐동안이라도 주민의 역할을 해보게 함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의 철학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을 위해 중요하다. 세계유산은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방문지 역할을 하면서, 관광을 넘어선 문화정체성과 관련한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문화적 만남과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세계유산은 평화를 위한 공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IV. 실천적 관점에서 세계유산 해석

1. 세계유산 해석의 중요성

세계유산협약 제4조는 “각 당사국은 미래 세대에게 세계 자연과 문화유산의 확인, 보호, 보전, 홍보와 전승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2008년 이코모스의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Ename Charter)는 홍보(presentation)와 해석(interpretation)을 구분했다. 홍보는 유산 정보를 물리적 접근, 방문자 경로, 안내 관광, 기반 시설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계획한 대중 소통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권위 있는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전달하는 일방 소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패널, 키오스크, 방문객센터 등은 홍보의 수단이다. 반면에 해석은, 때로 홍보와 동의어로 쓰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설계한 홍보와는 달리 대중 의식 제고와 문화유산 사이트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잠재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다. 홍보에서 방문자는 정보 소비자로서의 수동적 역할을 하지만, 해석에서는 방문자는 사이트 중요성을 형성하는데 능동적인 참여자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기획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유산 해석을 전달하는 사례는 미국 국립공원 서비스를 위해 Freeman Tilden이 1957년 ‘Interpreting Our Heritage’에서 제시한 해석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창의적인 소통 스타일, 사이트의 중요성을 방문자가 상상하도록 촉발하는 능력, 어떤 형태의 방문객에게 문화와 교육적 수준을 자각하도록 하는 일, 주의를 끌게 만드는 적절한 소리 등이 포함되며, 그 목적은 미적이고 역사적인 정보와 보전 윤리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석을 통해 이해하며, 이해해야 감동하고, 감동해야 보호된다”(Through interpretation, understanding; through understanding, appreciation; through appreciation, protection)는 원칙을 통한 하향식 해석방법은 유산의 중요성에 관한 일방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공식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청중은 개인이 되며 개성과 경험이 직접적인 호소의 중심이고 역사적 진실은 상대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유산의 중요성을 대중이 인정하도록 촉진하며, 정부나 기관에서 승인한 보존 방법을 바로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유산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공감하는 자원이 아니다. 공공 부문은 유산 일부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뿐으로, 유산의 정체성과 중요도, 유산의 소유 집단 등의

상황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한 해석, 우간다 카슈비 묘지에 대한 정치적인 논란, 바미안 불상의 파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Preah Vihear 사원의 문화적 영토적 중요성, 인도 아유타야(Ayodhya)의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 종교적 우월성에 대한 갈등,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말리 팀북투 수피 묘지와 도서관 파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세계유산의 광범위한 파괴 행위 등은 이런 갈등과 논란의 사례다. 유산 해석은 정체성의 정치, 원주민 인권 운동, 지역차립도, 유산 사이트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장소와 지역, 국가, 인종 집단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이다. 따라서 하나의 보편적인 유산 해석법만을 모든 공동체가 옹호하고 지지하도록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산 해석을 디지털 과학기술과 결합하면서 시각화, 상호반응형 웹사이트, 대중 참여 생산(crowd sourcing), 가상 환경 등의 첨단 분야가 유산 해석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유산의 해석과 보존에 관한 시민권과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유산 정보 소통을 확대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유산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가 유산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은 단순한 정보를 받는 사람에서 벗어나 참여자로서 능동적 역할을 하고, 지역공동체 역시 전통 보유자의 역할을 넘어 정보생산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민이 생산한 그림과 사진, 비디오 등에서 유적지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공동체의 적극적인 해석을 수반한 방문센터와 멀티미디어를 적용함으로써 장소의 중요성과 함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13년 유네스코 항저우 선언문(UNESCO Hangzhou Declaration)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에 문화를 놓고, 문화와 문화유산을 통해 가치와 윤리를 자각하는 시각을 중요하게 다룬다. 유산 해석에서 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결국 유산 해석은 자유롭게 모든 집단과 공동체 등이 참가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포용적인 해석은 세계유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량 이동과 사회 변혁, 인구·경제·기술 변화의 시대에 일방적인 유산 해석은 과정이 결과를, 협력이 수동적 지시를, 기억공동체가 모호한 청중을 대체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세계유산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서 참여(engagement), 윤리의식(ethics) 포용성(inclusiveness), 그리고 공감(empathy)을 상호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산 해석에 관한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재현이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 기억이 되기 때문이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젊은 세대는 박물관이나 홍보물에 적혀 있는 사실대로 믿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산을 해석하는지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전쟁기념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고 한다. “하나의 전쟁, 수많은 기억: 우리는 어떻게 호주 원주민과 앵글로 호주인과 다른 민족혈통을 지닌 호주인들이 제2차세계대전의 경험을 기억하는지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상할 수 있다. 여기 호주전쟁기념관에서 우리는 모두 기억할 수 있다”.

유산 해석은 집단을 분열시키거나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산 해석에서 특별함과 고유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유산 해석에서는 대체로 사람, 장소, 대상, 사건 사이의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사실 자긍심의 근원이면서도 편견을 낳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는 각자 유산에서 민족 간의 차별성을 강조했고 결국 전쟁과 집단학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남아공에서도 다른 인종 집단 간 문화적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은 결국 분열과 인종차별을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정치적 민족적 파편화와 분열·불안정·갈등이 목격되고 있고, 이는 무지와 편견, 불안,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신뢰와 자긍심 결여로부터 나온다. 집단의 소속감과 사회적 정체성이 확고한 경우에는 분열감을 억제할 수 있다.

유산 해석은 차별화와 분열보다는 공통의 분모를 찾고 국가 통합력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유산 해석을 통해 상호 이해와 동정심을 촉진하고, 반민주적 사고와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을 방문하고 그 속에 있는 장소와 관련한 개인의 정체성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찾도록 하는 것은 장소가 가진 긍정의 속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한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을의 역사·문화적 전통에 공감하게 된다면 집단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하여 결국은 마을 보존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2. 유산 해석 담론의 변화

유산 해석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전문가가 선택하고 구성된 권위적인 정보를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전통 단일 독백 방식(traditional monologual approach)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 말한 1957년 Tilden이 미국 공원 서비스를 위해 발간한 ‘Interpreting Our Heritage’ 지침서는 유산 해석에서 한동안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했다. Tilden이 제시한 6가지 해석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방문자의 개성이나 경험과 무관한 해석은 결실을 보지 못한다 2) 정보는 해석이 아니라, 해석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성공적 해석은 사실을 제시하는

것 이상이다 3) 해석은 많은 예술이 결합한 하나의 예술적 경지로서 모든 예술은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다 4) 해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훈(instruction)이 아니라 자극을 주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도록 도발(provocation)하는 것이다 5) 해석은 부분보다 전체를 제시하며 개념적이고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6) 아동들에게 하는 해석은 성인들의 해석을 희석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연령층에 따라 수요가 다르므로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당 지침서의 유산 해석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산 해석은 “해석을 통해 이해하고, 이해해야 감동하며, 감동해야 보호한다.” “비록 모든 해석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다. 해석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것을 드러내는 발견으로, 정보와는 다르다.” “유산 해석은 의사소통 기술, 대면 소통법의 결정체이다”. 유산 해석은 해설사와 가이드를 망라하여 역사적 기념물과 경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과학적·역사적·건축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예술이며 학습의 대상이다. 유산의 가치, 진정성,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감동은 의도된 결과이다. 이런 전통적 유산 해석에서는 권위를 부여한 표준화된 단일 해석을 옹호하고, 의사소통과 설명, 학습, 감동, 전달 방법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유산 해석(Authorized Heritage Interpret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첫째,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즉, 한 개의 해석방법만 있으므로 진정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유산과 관련한 정치적인 쟁점에서 대안적 담론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유산은 무차별적이고 단일한 속성을 갖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해석으로 전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예를 들어 유산 브랜딩과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화, 영토 분쟁, 관광 경제 시대에 유산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유산이 체험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면서 유산의 사회·경제·상징 가치가 변화했다. 상업화된 자원으로서 유산은 해석을 포함하여 유산의 디자인과 매력도를 다각화할 필요가 생겼다. 셋째, 하버마스(Habermas)가 권력의 정당성은 기념물 형태로 경관에 각인되어 있으므로, 개인은 자유롭게 다양한 담론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유산에 대해 자유롭게 다양한 해석과 가치를 공공영역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서 보듯이, 유산 해석을 둘러싼 행위는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하고 공유해야 하므로 투명성과 소통 능력이 강조되는 공공영역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다면적 해석(polylogues)과 공공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 출처를 차별화하고, 유산가치를 다양하게 개념화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 결과 유산 해석 담론은 시민과 공동체 중심의 다면적 유산 해석과 참여와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Silberman, 2013; Jameson, 2020). 다면 유산 해석과 참여 경험 위주 유산 해석 담론의 특징은 2008년 이코모스의 Enane Chart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헌장은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전문 해설사를 대체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위해 새로운 참여자와 음성, 주제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접근성, 다양한 정보 출처, 내용의 포괄성, 지속가능한 계획, 경제적 혜택을 동반한 공공 참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접근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정보 출처(information sources), 환경과 맥락(setting and context), 진정성(preservation of authenticity), 지속가능성(planning for sustainability), 포용성(concern for inclusiveness), 그리고 연구·훈련·평가의 중요성(importance of 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을 7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면적 유산 해석과 참여 경험 위주 유산 해석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유산 해석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정체성을 유산 해석에 포함하도록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독려하고, 갈등 유산(contested sites)이나 양심 유산(sites of conscience)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제적인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설사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시각에서 정체성을 논의하고 참여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재창조하도록 유산 해석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산 해석을 가치를 담는 그릇(vessels of value)으로 인식하여, 현대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충돌하면서 결합하고 발전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으로서 유산 해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유산 해석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고 지역공동체 참여와 갈등 유산에 대한 플랫폼 구축, 유산 해석의 범위 확대, 유산 해석에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기능 부여 등을 새로운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다면적 유산 해석과 참여 경험 위주 유산 해석은 포용적, 자기 체험적, 대중적 영역, 협력적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 해석은 정보에 바탕을 둔 포용적인 집단 활동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활발하게 참가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체험하면서 집단 정체성이나 사회적 규범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박물관 전시나 유산 강연 등에서 다양하고 혼합된 공동체의 기억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엄격한 교훈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행위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 체험하고 수행하여 자기표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유산 해석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전문가만의 발표가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협업의 과정으로서,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기억공동체의 참여자로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유산은 유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개입된 집합적 기억의 산물이다. 따라서 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기억의 해석에서 이견과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는 유산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산이 인권을 탄압하는 사례는 시민운동 탄압, 독재 정치, 강제노동, 노예 문제, 감옥, 대량 학살, 원주민, 이민자 문제 등이 있으며, 식민지 통치와 관련해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유산 해석을 둘러싼 이견 등이 있다. 이밖에 의도한 폭력 행위에 따른 희생자나 폭력적인 차별의식 조장, 어두운 유산의 역사는 무시한 채 긍정적인 역사만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 등도 유산 해석의 다면성을 무시한 일반적이고 교훈적인 독백 형식의 해석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이런 일방적인 단일 유산 해석은 국가 권력이 유산의 특정 가치만 옹호하거나 애국주의로 포장하거나 다양한 해석을 억압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유산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유산 해석의 다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은 시민의식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갈등 유산의 다면적 해석 사례

2015년 독일 본에서 열린 메이지 산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유산의 역사에 반영하는 문제로 등재 당시부터 한일 간의 갈등을 불러왔다. 등재 당시 결정문에서는 일본이 각 산업시설의 완전한 역사를 이해하도록 해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일본 역시 이를 준수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강제노동에 대한 충분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메이지 산업화의 영광 뒤편에 가려진 인권 말살과 열악한 강제 노동자의 삶과 희생, 가혹한 식민 통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17년과 2019년 2차례 걸쳐 보존상태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강제 노동(forced lab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반도로부터 대규모 노동자들이 세계대전 이전과 중간, 후에 일본에 들어와 산업을 지원했다”(2017년 보고서), “산업유산의 보존을 위한 각성과 정보 전파를 위한 싱크탱크로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계획 수립” 등과 같이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했다. 2019년 보고서에서도 그 이전 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요구조건을 대체로 만족하고, 필요한 부문 간에 대화를 통해 모든 노력을 했다” 등으로 왜곡하면서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하시마 섬에서 일한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이 하나의 대가족과 같이 어떤 차별도 없이 살았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강제 노동의 본질 왜곡을 시도

했다(<http://contents.nahf.or.kr/>). 그 결과 2021년 푸조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의 해석에서 강제노동을 동원한 유산의 역사를 반영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세계유산의 등재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에서 전체 유산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문제는 갈등 해소와도 관련이 있으며, 다양하고 다면적인 유산 해석법이 필요한 이유도 하나의 길이 아닌 여러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 유산의 해석에 온전한 역사 반영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두운 역사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와 부정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인정해야만 역사적인 잘못을 반복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영적 수준도 진보할 수 있다.

각지의 세계유산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노예무역, 자원 수탈, 전쟁과 강제노동력 동원의 다양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볼리비아의 은광 도시인 포토시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은광채굴을 위해 원주민을 강제노역시켰던 유산이며, 쿠바의 트리니다드와 잉헤니오스 계곡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장소다. 서부 아프리카 지역 세네갈의 고리 섬과 감비아의 쿤타킨테, 탄자니아의 스톤타운은 유럽인의 노예무역 기지였고, 가나의 요새와 성들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노예 무역상이 점령한 노예 무역기지였다. 세계유산인 아프리카 동남부 모리셔스의 섬인 르몽산(Le Morne Mountain)은 도망친 노예들에게 천국과 같은 ‘도망자 공화국’이라고도 불렸던 곳이다. 호주 죄수 유형지(The Australian Convict Sites)는 영국이 죄수들을 호주로 강제로 호송하기 위해 세운 감옥시설이며, 2021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는 노예 무역과 이민 역사와 관련된 유산이다. 독일의 산업 유산인 석탄광과 제철소는 산업혁명의 가치 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을 동원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역사의 어두운 면을 모두 전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산업 유산의 사례만을 보아도 우선 독일의 램멜스버그 광산(Rammelsberg Mine)은 천년이 넘는 광산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광산시설 안에 램멜스버그 광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박물관에는 광업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로 동원한 동유럽인과 전쟁포로의 역사도 함께 전시하고, 중세의 역사 해석 공간과 같은 면적인 전체 전시 공간의 20%를 강제동원의 역사에 할애하고 있다. 더불어 유산의 올바른 역사를 반영 하기 위해 북부 독일의 하르츠(Harz)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산업 유산을 통합적으로 해설하는 정보센터를 여러 곳에 운영하고 있다. 독일 루르지방의 졸페라인 석탄산업단지(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는 150년 이상의 중공업 역사를 보여주는 산업 유산이지만, 이곳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무기 생산을 어떻게 지원했으며, 유대인과 폴란드인과 프랑스인 및 외국인 전쟁포로를 어떻게 강제 동원했는지에 대한 역사도 증언하고 있다. 독일의 차르 석탄 단지에 있는 펠크린겐 철광소(Völklingen Ironworks)는 19세기와 20세기 서유럽과 북미에 세워진 일관제철소의 유일한 사례로 독일 중공업의 역사를 증명하는 유산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 폴란드, 유고,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어 노역에 종사한 상세한 기록을 모아 '강제노동'이라는 제하의 별도의 영구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이름과 기록, 증언 등을 출판하여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념하고 있다.

갈등은 문화유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유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자연유산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는 대부분 사회적인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1996년부터 시작되어 잠깐의 휴전기를 거쳐 2003년에 종식된 내전으로 인한 정치 불안과 무장세력 간 충돌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콩고의 5개 자연유산이 모두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되는 결과를 낳았다. 초지 사바나와 삼림으로 대표되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함께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4개 종의 서식지인 콩고의 가람바국립공원(Garamba National Park)과 끝없는 열대 우림으로 유명하며 고릴라의 집단 서식지 중 하나인 카후지 비가 국립공원(Kahuzi-Biega National Park)은 1996년 이래 위험에 처한 유산이 되고 있다. 살롱가(Salonga)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지역이자 콩고 공작새, 난쟁이 침팬지 등의 서식지였지만 1999년 이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최대의 유역지대로 유인원과 희귀 동물인 오카피의 집단 서식지며, 유목 피그미족이 사는 곳인 오카피 야생보호구역(Okapi Wildlife Reserve)은 1997년 이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곳에서 자행되는 불법 목탄 생산과 산림 황폐화, 밀렵 등은 희귀종의 멸종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며, 내전으로 인한 540만 명 넘는 인명 손실과 경제적인 문제는 자연유산 보호를 뒷전으로 미루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다.

한편,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있는 비아로위차(Bialowieza) 숲은 유럽의 초기 삼림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초국경 자연유산이지만, 최근 난민 이동방지 대책으로 국경을 따라 철책이 설치되면서 동식물의 이동을 제약하고 생태환경 파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환경을 사회·정치적 맥락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연유산의 보호는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유산 해석 원칙과 향후 과제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등재 기준 (vi)번에서 유산의 무형적 가치를 적용하도록 해 왔지만, 그 내용은 인류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 등에 국한함으로써 실제적인 적용 자체가 어렵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산의 무형적 가치 등은 진정성을 나타내는 8개 속성 항목에서 간략히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산 해석을 둘러싼 갈등 해소의 방안으로 2021년 개정된 운영지침에서는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예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신과 감정 항목에서 무형유산의 전통과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기억을 서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항목에서 국내외 갈등을 서술하고 평화적인 조정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향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겠지만, 등재 과정에서 운영지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비평가 신청서 항목 2번 유산의 역사와 발전을 서술하는 항목에서 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 해석의 갈등 등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인권에 반하는 범죄 등과 관련이 없음을 신청 당사국이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예비평가 단계에서 대화와 갈등 해소의 전략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분쟁 발생 시에는 긴장 해소 이전까지 등재 절차를 보유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예비평가뿐 아니라 업스트림 과정과 모니터링, 잠정목록 등재 단계에서부터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갈등이 있는 이해당사자나 당사국 간 합의를 등재의 필수 요건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산의 보존관리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지역적 가치(local value)를 반영하여 보존하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주의를 환기하며, 이를 보존관리의 항목에 넣어 제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진술문은 중요하고 표준적인 유산 해석의 바탕이 되지만, 지역적 가치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등재신청서에서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문과 별개로 지역적 가치를 보유한 구성요소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진술문(Statement of Significance)을 작성하여 보존관리에 활용한다면, 통합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를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나 세계기록유산 제도와 연계하여 유산의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OUV 서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유산의 경우에는 국제양심유적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등과 협력하여 유

산과 관련한 인권 탄압, 폭력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예비평가의 평화로운 조정절차에 반영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OWH Heritage Place Memory, interim report, 2021).

지금까지 유산 해석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포용성(inclusiveness),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그리고 공동체 참여(community engagement) 등이 제시된 바 있다(Smith, 2020). 그러나 개념과 이론 수준의 논의에 그쳤고,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전략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2022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내놓은 유산 해석의 지침서(Guidebook 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는 세계유산 해석의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네스코의 평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 둘째, 문화유산으로서 중요성을 지닌 장소의 보호를 위한 인권 기반의 접근을 지원할 것. 셋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것. 넷째, 문화유산 장소의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것. 다섯째,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부응할 것 등이다. 장소에 기반하고, 평화건설 및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세계유산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주제와 방법으로는 1) 평등과 권리 기반 접근 2) 정치, 협치, 참여 3) 다원적 시각과 윤리, 다양한 목소리 4) 지속가능발전목표 5) 기후변화 6) 갈등과 불화 해소 등을 제시했다.

유산과 관련한 국제 갈등은 강제노동이나 인권 유린 등 장소와 관련한 기억을 언급하지 않거나 과거의 역사를 당사국 시각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소 기반의 바탕 위에서 유산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필요 없는 갈등 증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 보호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Burra Charter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장소 기반적인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장소 안에는 유산과 사람에서부터 집단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무형의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유산 해석의 범위를 OUV 중심에서 장소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산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면적 유산 해석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으로, 한국에서 출범한 세계유산해석센터와 연결하여, 세계유산 기금을 유산 해석 교육을 위한 목적성 기금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문화다양성, 다양한 가치 반영 등에 대한 방법론을 유네스코의 세계시민학교의 교육 과정에 담는다면, 세계유산해석센터의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에 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보

존관리 계획 등에 어떻게 담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 등을 사례연구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통해 제시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 공동체와 관련하여 유산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담고, 전통 기술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유산 해석과 활용, 홍보 전략 등을 사례로 포함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세계유산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체성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새로운 갈등의 소지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과거 역사에 대한 미화나 국경선 및 민족 구성의 변화를 현재 정치적인 우세 집단의 시각에서만 평가하여 주류 해석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유산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산에만 국한하여 역사와 발달을 기술하기보다는 유산을 만든 환경(setting)을 고려하고 시간의 변화를 장소의 범주에서 광범위하게 해석하며, 다양한 해석과 이견도 참고자료 등으로 적시해야 한다. 만일 유산이 전쟁이나 전투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반드시 집단이나 장소의 기억을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전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방문객 역시 다면적인 유산 해석을 위한 이해당사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방문객의 생각이나 체험의 결과를 환류하여 제시하며, 해석과 홍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만큼 해석과 별개로 홍보 권고 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보관에서 이해당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유산 해석의 다양성과 방문객의 환류 의견을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과 기법을 개발하고 지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해석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인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도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OWHC-AP)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의 유네스코 Category II 센터인 세계유산해석센터(WHIPIC)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현재, 2021, “세계유산 국제보존원칙의 변화에서 나타난 도시유산의 개념의 형성과 발전,” *세계유산연구*, 7(1), 13-22.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https://whc.unesco.org/en>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Guidebook on the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on progress)*.
- 이현경·손오달·이나연, 2019,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비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33(3), 5-29.
- 조두원, 2021, “이코포트 현장의 해석과 설명,” *세계유산연구*, 7(1), 1-12.
- 최병두, 2012, “역사적 경관의 복원과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2(4), 92-135.
- 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4-574.
- 최재현,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7.
- 최재현, 2020,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검토: 독산성을 사례로,”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세계유산연구*, 6(2), 1-12.
- 최재현, 2021, “유산과 장소, 기억의 담론: 세계유산 해석의 다면성,” *건국대학교 세계유산연구소, 세계유산연구*, 7(2), 1-14.
-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Albert, M-T, Bernecker, R., Rudolff, B. (eds), 2013, *Understanding heritage: perspectives in heritage studies*, de Gruyter, Berlin and Boston.
- Bourdieu, P., 1989, *Social space and symbolic power. Social Theory* 7(1), 14-25.
- Castello, L., 2010, *Rethinking the meaning of place*, Ashgate, Farnham.
- Halbwachs, M., 1980 [1950], *The collective memory*. Harper & Row, New York.
- Hall, S., 1999, *Whose heritage? Un-settling ‘the heritage’, re-imagining the post-nation*, *Third Text*. 13(49), 3-13.
- Hawke, SK., 2012, *Sense of place in changing communities: the plurality of heritage values*. In Negussie, E. (ed) *Changing world, Changing views of heritage: heritage and social change: Proceedings of the ICOMOS scientific symposium 2010*, ICOMOS, Paris, 37-44.
- Heritage for building peace, 2021, G20 Culture summit, held in Rome, culture united the world <<https://cultura.gov.it/g20cultura>>
- https://doi.org/10.1007/978-3-030-11464-0_3
- ICIP, 2008,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ICIP.
- ICOMOS ICIP <https://icip.icomos.org>
- ICOMOS, 2008,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Pari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ICOMOS, 2020,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flections on whether and how these might related to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ts operational Guidelines*, 32p. (https://www.icomos.org/images/DOCUMENTS/World_Heritage/ICOMOS_Discussion_paper_Sites_associated_with_Memories_of_Recent_Conflicts.pdf)
-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 of Conscience(ICSC), 2018, *Interpretation of Site of Memory, Study Report commissioned by the World Heritage Centre of UNESCO and funded by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48p.
- Jameson, John H., 2020,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in Smith, C., (ed) *Encyclopedia of Global Archaeology*,

- Springer Nature Switzerland AG, 1-23.
- Labadi, S. and Gould, P.,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Heritage, Community, Economics. In Meskell, L. (ed) *Global Heritage: A Reader*, Oxford, Wiley-Blackwell, 196-216.
 - Labadi, S., 2013, UNESCO, Cultural Heritage,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Plymouth, AltaMira, MA.
 - Lähdesmäki, T. et al. (eds.) *Dissonant Heritages and Memories in Contemporary Europe*, Palgrave Studies in Cultural Heritage and Conflict, 51-60.
 - Larsen, P.B. and Logan, William, 2018,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Routledge.
 - Nora, P.,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Special issue: memory and counter-memory), 7-24.
 - OWH, 2021, *Heritage Place Memory September Team 2021 interim report*. (<https://www.ourworldheritage.org>)
 - Paasi, A., 2004, Place and region: looking through the prism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4), 536-546.
 - Preparatory Office for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2020 *Online Lecture Series on understanding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해 온라인 강연시리즈)*
 - Sandholz, Simone, 2017, *Urban Centres in Asia and Latin America: Heritage and Identities in Changing Urban Landscapes*, Springer, Switzerland.
 - Silberman, N. A., 2013, Heritage interpretation as public discourse: towards a new paradigm. In Albert M-T, Bernecker R., Rudolff, B. (eds) *Understanding heritage: perspectives in heritage studies*. de Gruyter, Berlin/Boston, 21-33.
 - Silva, Kapila D., 2015, Paradigm shifts in global heritage discourse, *Space and Communication*, 1(1), 1-13.
 - Tilden, Freeman, 1957, *Interpreting Our Heritag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NC.
 - Turner, M., 2013,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in Albert M-T, Bernecker, R., Rudolff, B. (eds) *Understanding heritage: perspectives in heritage studies*, de Gruyter, Berlin/Boston, 77-87.
 - UNESCO, 2018,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Wöhler, K., 2008, Heritagefication: Zur Vergegenwärtigung des Kulturerbes. In: Luger K, Wöhler, K (eds) *Welterbe und Tourismus: Schützen und Nützen aus einer Perspektive der Nachhaltigkeit*. StudienVerlag, Innsbruck, 43-58.

2022년 제5호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기 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은이 최재현
편 집 김은영 백영연 김혜수
발간일 2022년 11월 16일
퍼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 열 김보람
디자인 수카디자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ir.team@unesco.or.kr

간행물 등록번호 IR-2022-RP-6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는 외교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www.unesco.or.kr



유네스코 이슈 브리프

UNESCO ISSUE BRIEF